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8
------	----

발의일자 : 2006. 10. 23

발 의 자 : 옥영복의원의 8인

1. 主 文

별첨 “결의문(안)”과 같음

2. 提案理由

- 지난 2002년 36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4회 부산아시아드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여 세계일류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포스트 아시아드 10대 사업”을 선정 발표하면서 북한측 응원단을 태우고 온 만경봉호가 정박한 다대포항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통일아시아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음.
- 이에 부산시에서는 2003년부터 공원 편입 토지 사용협의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등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불법주차, 무단 쓰레기 투기 등 환경 불결지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시민단체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평화통일 염원이 담긴 「통일아시아드 공원」은 조속히 조성되어 이를 기념하고 서부산의 상징으로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37만 사하구민과 사하구의회는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임.

3. 보낼 곳

- 부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통일아시아드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

決 議 文

부산시는 지난 2002년, 36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과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 세계일류 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포스트 아시아드 10대 사업”을 선정, 발표하면서, 북측 응원단을 태우고 온 만경봉호가 머물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다대포항 일대에 「통일아시아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시안게임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남북상봉의 역사적인 현장에 통일아시아드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받으면서 온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다대포에 당시의 감동을 되새기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통일아시아드공원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대포는 엄청난 통일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의 젖줄인 낙동강과 태평양이 만나는 곳이며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금강산 유람선이 기항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부산의 공원 면적은 1인당 5㎡, 체감면적은 0.8㎡에 불과하며, 특히 우리 사하는 도시계획상 공원 면적은 1인당 5㎡이나 실제 조성된 면적은 0.23㎡로, 을숙도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공원이 없는 게 현실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서부산의 상징이 될 통일아시아드공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일동은 37만 사하구민뿐 아니라 36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바램을 담아 「통일아시아드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